장치산업과 금리의 역학관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급격한 신·증설 투자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원료비 상승 및 내수·수출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시중 자금사정이 넉넉치 못해 자금 빌리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푸념과 함께 금리가 너무 높아 금융비용 부담이 지나치다는 원성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신규 투자기업의 경우, 연간 금리부담이 2000억원에 달하고,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순수이자 부담만도 1000억원선에 달한다고 하니, 금융비용 부담이 경영을 압박하고 나아가 이자를 주기 위해 새로운 금융부담을 안아야 하는 악순환까지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높은 금융비용 부담은 무분별한 투자를 감행한 기업 스스로의 책임도 상당하나, 국내 금리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4~5년간 기업들은 높은 임금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너나 가릴 것없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산업 투자에 관심을 돌렸고, 이에 연유해 석유화학이 공급과잉으로 치달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석유화학 설비투자액을 보면 금방알 수 있다. 87년 석유화학 설비확대를 위한 투자액은 4672억원으로 전체투자액 6543억원(합리화 625억원·공해방지 25억원·연구개발 207억원·기타 1014억원 포함)의 71.4%에 달했다.
88년에는 총 투자액 1조2529억원(91.4% 증가)중 설비능력 확대 투자비가 130.8% 증가한 1조768억원에 달했고, 전체 투자비 비중도 85.9%로 확대됐다.
또 89년 1조9298억원중 1조5307억원(47.6% 증가), 90년 2조8779억원중 2조5090억원(63.9% 증가), 91년 2조7490억원중 2조3871억원(4.9% 증가)으로 최근 4년간(88~91년) 석유화학 설비능력 확대 투자액이 7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본지 1991/1/15일자 P.34 참조>
4년간의 총투자비도 8조8100억원에 달해, 연평균 2조2000억원을 석유화학에 쏟아 부었으며, 최근 3년간은 연평균 2조5000억원이 넘고 있다.
이 2조5000억원중 자기자금 비율을 50%로 잡고 금리를 15%로 계산할 경우, 연간 1875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자기자금 비율 30% 및 금리 17.5%를 상정할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이 3000억원을 넘는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신규 투자나 증설투자를 가릴것 없이 부채비율이 70%선은 족히 넘고, 금리도 은행·전환사채·일반사채 평균 17~18%에 이르고 있어, 후자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연간 3000억원의 이자 부담 및 7000억원의 원리금 상환을 합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금리부담은 연간 1조원에 이르러, 현재의 가격 및 채산성으로는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여주어야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기업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자체를 무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지나쳐 무리하게 신·증설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져 다시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90년과 91년 매출액중 자기자금 비중이 9.9%·9.2%로 89년 12.5%보다 3%포인트 가량 낮아졌음에도 불구, 매출액중 설비투자액 비중은 10.6%·11.1%로 89년 11.3%와 거의 비슷하고, 그 결과 외부조달자금 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간접금융 비율이 90년 38.3%에서 91년 43.7%로 5.4%포인트 높아졌다.
또 직접금융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회사채 비중도 90년 21.5%에서 91년 25.4%로 3.9% 포인트 높아졌다.
무리한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막대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대만과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91년 기업 차입금의 명목이자율은 13.0%로 일본 6.7%·대만 9.1%보다 월등히 높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차입금금리는

3.9% 수준에 머물러 90년 일본의 3.6%보다 조금 높고 대만 5.0%보다는 낮다.
즉,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이 일본 · 대만의 2%선보다 높은 5.7%에 이른 것은 그만큼 부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금리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화학저널 1992/7/1>